

강진 야간여행 '나이트드림' 에서 '강진 도시락' 맛보세요

다음달 5일까지 매주 금요일 세계모란공원 귀리·묵은지·파프리카 3가지 도시락 탄생

강진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 바다)이 '강진 야간여행 나이트드림'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강진 특산물로 만든 '강진 도시락'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강진 야간여행 나이트드림'은 11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세계모란공원에서 진행된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아름다운 야경

자원과 공연 등을 연계한 가을 소풍 시극 '한밤의 꿈'이 있으며 '을유년', '모란이 피기까지', '초의선사', '어느 날 어느때고' 등 4개의 공연 모두 군민들이 직접 참여한다.

행사는 참가자 전원 열 체크 및 의무 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두기 버스 탑승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다.

'강진 도시락'은 전라남도에서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의 일환인 모여락(樂) 프로그램에 k-food creator 분야 전문가를 초청, 군민이 강진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해 개발했다. 우리지역 농산물과 귀리, 묵은지, 파프리카 등을 이용한 강진만의 특별한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 기획, 개발, 교육 까지 2달간 전 과정에 전문가와 군민들이 머리를 맞댔다. 그 결과 건강한 맛(귀리), 전통의 맛(묵은지), 신선한 맛(파프리카) 3가지 도시락이 탄생했다.

김바다 대표이사는 "강진특산물

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도시락을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강진 야간여행 나이트 드림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에게 맛볼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많은 방문과 참여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추진해 강진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인상 깊은 관광지로 기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강진, 야간여행 나이트 드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061-434-7999)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김영일 기자



해남 솔라시도CC 개장, 서남권 관광활성화 속도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오시아노관광단지 잇는 서남권 관광허브 육성



서남권 관광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해남군 대규모 사업들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해남군 산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골프장 솔라시도CC가 16일 개장했다. 솔라시도CC는 77만7,846㎡(23만

여평) 면적, 18홀 규모 규모로, 정원도시를 지향하는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컨셉에 맞춰 거대한 정원을 산책하는 듯한 편안하면서도 아름다운 경관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지리적 위치로 서영양IC에서 10분

이내 도착이 가능하고, 서해안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무안국제공항 등 광역 교통망이 인근에 위치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어디에서도 접근성이 뛰어나 새로운 레저 명소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솔라시도CC가 개장함에 따라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추진도 탄력을 받고 있다.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상공리, 덕송리 일원 구성지구 2,090여만㎡(632만평)을 포함하는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지난 2005년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이래 십수년간 사업추진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전라남도 블루이코노미의 일환인 전남형 스마트블루 시티 개발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종이수입증지 '역사 속으로'...진도군 이달 중 전면 폐지

신용카드·현금·전자납부시스템 등으로 대체

진도군이 각종 수수료 납부 시 사용해 온 종이 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한다.

14일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군 수입증지 조례'를 지난 9월말 개정, 증명과 인 허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시 사용해 온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한다.

진도군 종이 수입증지가 폐지되도 기존에 사용 중인 인증지, 민원발급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 현금, 전자납부시스템 등 다양한 납부 방식으로 전자 수입증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입증지 폐지로 민원인이 민원서류 신청 시 수입증지를 사서 일일이 서류에 붙여야 하는 불편함과 분실, 훼손, 위변조, 재사용 등의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종이 수입증지는 이달 중 진도군 금고인 NH농협은행에서 관계자 임회 하에 영구폐기할 계획이다.

현재 군청 내 농협은행 금고에 보관 중인 수입증지는 10원짜리부터 1만원

짜리까지 총 13종이다.

종이 수입증지는 1950년대 민원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지자체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이다.

수입증지는 조폐공사에 의뢰해 인쇄한 것으로 권종별 100매씩 따로 묶어 행정박물관 기록물로 이관, 관리할 예정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종이 수입증지가 폐지되면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덜고 행정관리 경비의 절감, 민원처리 시간 단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도=조성용 기자

완도군, 월드옥타 수출상담회서 170만 불 수출 성과 거뒀

라오스·네덜란드·일본에 전복·해조류·광어 수출

완도군은 지난 13일 그랜드워커힐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외 동포 최대 경제 단체인 월드옥타가 주최하는 '제25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연계 수출상담회'에 참가하여 라오스, 네덜란드, 일본 등 3개국과 총 170만 불(약 20억원)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지난 5월 대전에서 열린 '월드옥타 세계대표대회 수출 상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월드옥타가 주최하는 수출 상담회에 참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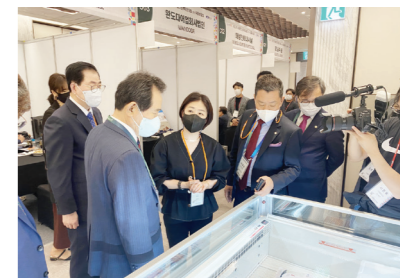
완도군에서는 관내 5개 기업이 참가하였으며, 총 15개국의 바이어들과

24건의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결과 완도군 수출 기업인 흥일식품(해조류)이 라오스(100만 불), 완도다(전복, 해조류)는 네덜란드(60만 불), 해성인터내셔널(광어)은 일본(20만 불)과 각각 수출 협약(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제품 설명을 하지 못하는 등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수출 상담회 2회 참가 만에 거둔 결실이다.

상담회에는 완도군뿐만 아니라 서



울시와 남양주시 등에서 70여 개의 중소기업이 참가하였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 세계 30개국, 46개 지역, 약 130여 명의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완도=이민혁 기자

장흥군, 유용 미생물 이용 친환경 생산 기여

장흥군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축사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유용 미생물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올해 유용 미생물 배양실에

서 배양한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 등 5종을 1,060농가에 60톤을 공급했다. 유용 미생물은 과채류의 당도 향상, 건강한 작물 생육, 질소 고정, 인산 가용화 작용, 토양 유기물 분해, 병해충 감소, 지력 향

상, 작물의 면적 기능 활성을 돕고 생산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퇴비 부속도 측정 의무화가 실시됨에 따라 퇴비 부속을 높이기 위해서 유용 미생물을 활용하면 발효 시간이 짧아지고 냄새도 줄어 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전라남도